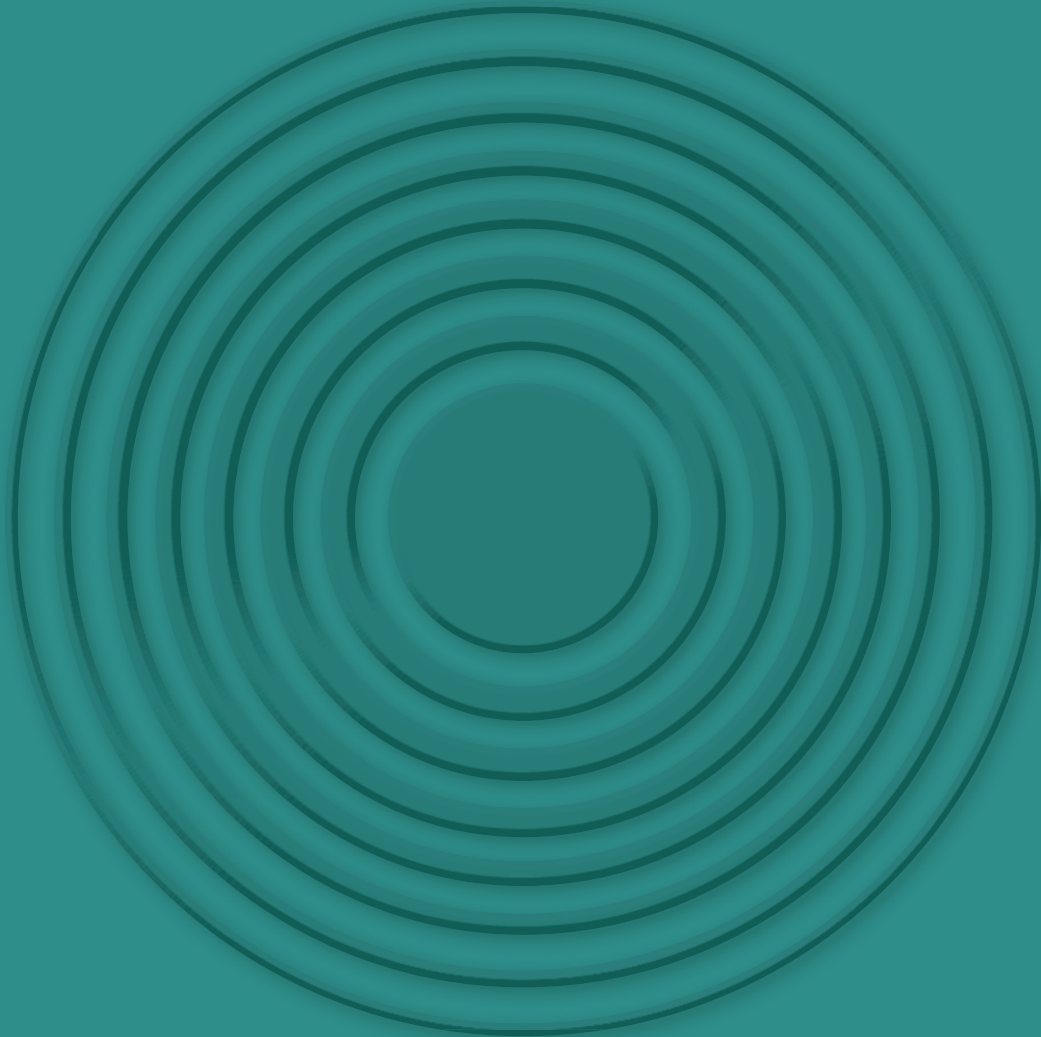


A L C H E M Y O F

INSPIRATION



2026 03+04

감동의 연금술

세아가족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감동의 연금술

감동의 연금술

ALCHEMY OF INSPIRATION



연금술사는 쇠를 금으로 바꾸는 사람을 뜻하며, 오늘날에는 변화와 창조의 주체를 빗대어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아에도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창조하는 연금술사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몸으로 부딪히며 쌓은 연륜으로 극한의 기술을 실현하는 사람들.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기술력으로 감동을 빚어내는 세아인들의 모습이 큰 울림을 전합니다.



기술과 예술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극한의 기술은 그렇게 완성된다.
기준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변화를 감지하며, 오차를 줄이는 과정 속에서
제품은 단순한 결과물을 넘어 '품질'이라는 가치로 완성된다.



철을 만드는 현장에서도 그렇다.
온도와 시간, 성분의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고
수많은 변수 속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일.

10

사색하다

감동의 연금술.
기술이 예술에 닿는 순간

12

통찰하다

'완벽'이라는 이름의 감동,
피지컬 시 시대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길



12

18

대화하다

디테일로 완성하는 작품,
신뢰로 빛어내는 감동
- 세아제강 대경공장
오규섭 팀장 · 권진우 팀장



28

24

나눔세아

나눔세아가 만든
태원이의 작은 기적

28

뉴스룸 1

권력의 끝에서 울린 목소리,
인간을 향하다
- 2026년 세아이온형문화재단 음악회

34

뉴스룸 2

변화의 파고를 넘어 이어가는
지속가능한 성장
- SeAH Global Inc 창립 10주년

38

뉴스룸 3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인시키다
- 세아홀딩스 국내 최초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40

40

뉴스룸 4

무결점으로 입증한 준법경영,
신뢰를 넘어 경쟁력이 되다
- 세아제강지주 · 세아제강 · 세아씨엠,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갱신심사 통과

42

세아 명예의 전당

다품종 소량 시대를 돌파한 공정 혁신
- 세아베스틸 세아업적상 은상 수상팀

48

세계인, 세아인

방콕에서 고객 · 시장, 그리고
세아를 잇는 균형을 만드는 사람
- 논 롱송분(Non Longsomboon)
SeAH Global Thailand 영업 · 마케팅 매니저



42



52

52

맛의 추억은 철을 타고
봄을 깨우는 경쾌한 소리,
고소한 뽕튀기

56

부캐의 발견

고요한 활시위 너머,
흔들리지 않는 나를 보는 일
- VNTG 이재훈 매니저

60

공간미학

소리를 담은 금속의 숲
- 오디움(Audeum)

66

세아뉴스 & 사우동정

그룹 내 주요 행사 및
사우동정 소식



60

68

당신을 칭찬합니다

세아네트웍스 솔루션사업팀
이경민 매니저

세아웹진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 주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고민거리나 공유하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실 황수진 대리 sujin.hwang@seah.co.kr / 02-6970-0094

발행일 2026년 4월 20일(통권 422호)

발행인 김수호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4

ISSN 2636-1787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Studio KENN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동의 연금술, 기술이 예술에 닿는 순간

시작하다

기술과 예술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능숙함은 어느 순간 기술을 예술의 경지로 이끈다.

철을 만드는 현장에서도 그렇다.

온도와 시간, 성분의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고

수많은 변수 속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일.

설비로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그 마지막 판단에는 결국 사람의 감각과 축적된 경험이 더해진다.

극한의 기술은 그렇게 완성된다.

기준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변화를 감지하며, 오차를 줄이는 과정 속에서

제품은 단순한 결과물을 넘어 '품질'이라는 가치로 완성된다.

그 품질은 고객에게는 믿음이 되고, 산업에는 안정이 되며,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된다.

완벽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결국 기술을 감동으로 바꾼다.

반복되는 공정 속에서도 완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감각을 깨우는 사람들.

단단한 금속을 만드는 일이지만, 그 손길을 거치며 기술은 감동으로 환원된다.



‘완벽’이라는 이름의 감동, 피지컬 AI 시대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길

글. 최재봉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우선
글로벌 리더 기업들의
‘베스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 비결은 바로 타협 없는
완벽한 기술력,
그리고 극한의 디테일이
빛어내는 목직함 감동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단언컨대 ‘감동’에서 비롯된다. 지금 세상은 온통 AI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는 고객의 감동적인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놀라운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고 무인 택시가 시내를 돌아다니는 시대라지만, 만들어진 기술 수준의 디테일이 마지막 고객 경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시장의 반응은 냉담해지고 만다. 더구나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면서 시장경제는 ‘고객이 권력’인 시대로 급속히 이동했다. SNS를 통해 고객의 경험이 확산되면서 국경 없는 온라인 시장에서 매출이 폭발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상식이 됐다. 그만큼 고객의 경험, 특히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의 감동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나라다. 지금껏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로 기적 같은 발전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압박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정부에서는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자고 외치고 있지만 구호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모든 기업은 잘 알고 있다.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우선 글로벌 리더 기업들의 ‘베스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 비결은 바로 타협 없는 완벽한 기술력, 그리고 극한의 디테일이 빛어내는 목직함 감동이다.

Best P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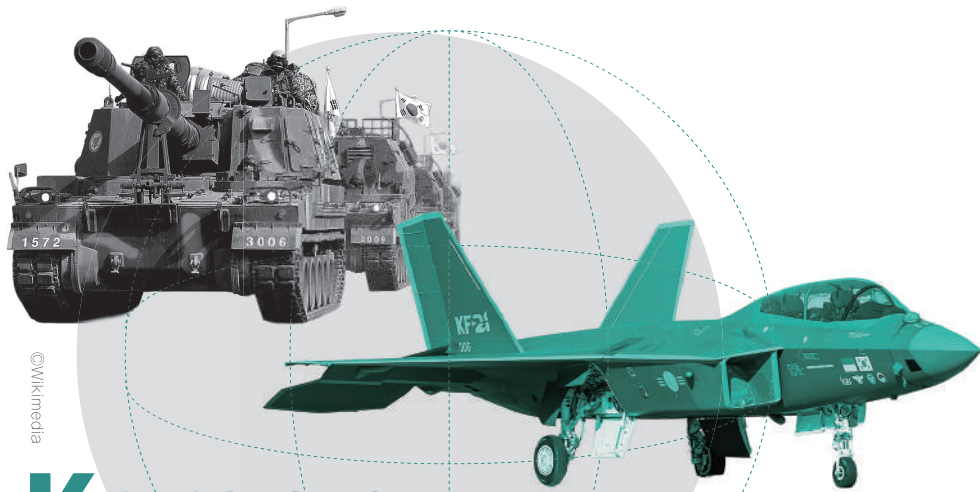
철에 가치를 부여하는 감동의 연금술사

철강이라는 거칠고 거대한 물리적 실체에 고도의 가치를 부여하는 생산 현장의 연금술사들이 만들어내는 '감동' 역시 이와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쇳물에서 불순물을 극한으로 정제해 내고,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정강과 특수강은 이제 단순한 기초 소재를 넘어섰다. 이는 현대 산업이 도달할 수 있는 미학의 정점이자, 인류의 생명과 일상을 넘어 미래까지 굳건히 지키는 위대한 방패다.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출고 소식은 온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울림을 줬다. 마하의 속도를 돌파하며 창공을 가르는 전투기의 심장, 터보엔진의 내부 온도는 무려 1,500도를 훌쩍 넘나든다. 이 지옥 같은 열기와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며 수만 개의 부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은 바로 초내열합금 기술에 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팽창하거나 변형되지 않는 완벽한 금속 소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최첨단 항공 설계 기술도 결코 날아오를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며 K-방산의 위상을 높인 K9이나, 적의 도발을 원점에서 타격하는 초정밀 미사일의 뼈대 역시 극도의 정밀함을 갖춘 특수강에서 출발한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전쟁의 공포가 일상화된 오늘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산 기술의 디테일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감동을 선사한다. 최근 중동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대한민국 방산에 전문학적인 자문을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실전이라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내구성과 신뢰성, 즉 '완벽한 디테일'이 주는 감동 때문이다. 우리가 만드는 공구강, 내열소재, 특수강 등은 시대를 넘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대한 방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정정강과 특수강은 인류의 생명과 일상을 넘어 미래까지 굳건히 지키는 위대한 방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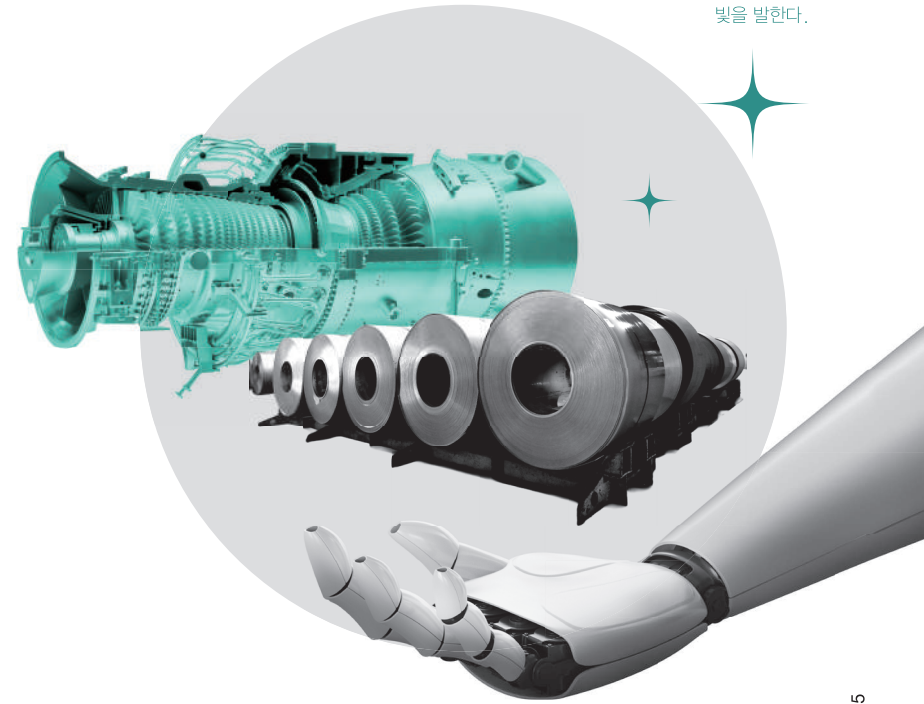
©Wikimedia

Korean Defense Industry

우리는 찬란한 AI 문명의 혜택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

초고온과 압력을 견뎌내는 철강 소재의 정밀한 품질이 있기에

내열·청정 철강 기술의 진가는 우리의 일상을 넘어 다가오는 미래 문명을 지탱하는 인프라에서도 빛을 발한다.



AI 문명의 산소, 발전 설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

이러한 내열·청정 철강 기술의 진가는 우리의 일상을 넘어 다가오는 미래 문명을 지탱하는 인프라에서도 빛을 발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규모 발전 설비의 심장인 고온 가스터빈이다.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발전 설비 주문이 우리나라로 이어지고 있다. 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모든 빅테크 기업이 AI 경쟁을 위한 거대 데이터센터 건립에 나서면서, 반도체 못지않게 고품질 전력 생산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발전 산업 역시 AI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베스트 파트너로 떠오른 것이다.

과거 전기가 인류에게 풍요로움과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이었다면,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전기는 곧 '산소'와도 같은 존재이다. 거대한 AI 데이터센터를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전력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내는 가스터빈의 블레이드는 1,600도 이상의 초고온 가스를 견디며 분당 수천 회 회전해야 한다. 쇳물 속 미세한 기포 하나, 0.001%의 성분 오차만으로도 터빈 전체가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극한의 조건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환경을 견디는 철강 소재의 정밀한 품질이 있기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찬란한 AI 문명의 혜택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 결국 미래 산업의 중심에도 여전히 섬세한 디테일의 연금술사, 철강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Phono Sapiens

현대의 소비자는 제품의 마감, 표면의 질감, 이음새의 완성도와 같은 미세한 디테일을 통해 브랜드의 철학과 진정성을 판단한다.



완벽한 소재가 소비자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때, 비로소 글로벌 시장의 팬덤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의 마음을 훔치다, 팬덤 경제를 이끄는 철의 미학

철강의 가치는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강인함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웅장한 건축 자재부터 도로 위를 유려하게 달리는 자동차, 거실 한쪽에 놓인 프리미엄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철은 아름다운 소비재로 변모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비교하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소비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능만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현대의 소비자는 제품의 마감, 표면의 질감, 이음새의 완성도와 같은 미세한 디테일을 통해 브랜드의 철학과 진정성을 판단한다.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운 자동차의 곡면이나, 차가운 금속 소재임에도 따뜻한 공간의 미학을 완성하는 프리미엄 가전의 세밀한 표면 처리는 고도의 제강 및 압연 기술이 빚어낸 현대의 예술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압도적인 디테일과 예술적 경지에 이른 제품력을 마주할 때 비로소 깊이 감동하며 자발적인 팬덤을 형성해 그 브랜드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광고에 까지 참여한다. 완벽한 소재가 소비자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때, 비로소 글로벌 시장의 팬덤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고객의 감동이 미래 시장을 여는 진정한 힘이 되는 시대다.

직감에서 데이터로, AI 사피엔스 시대의 새로운 연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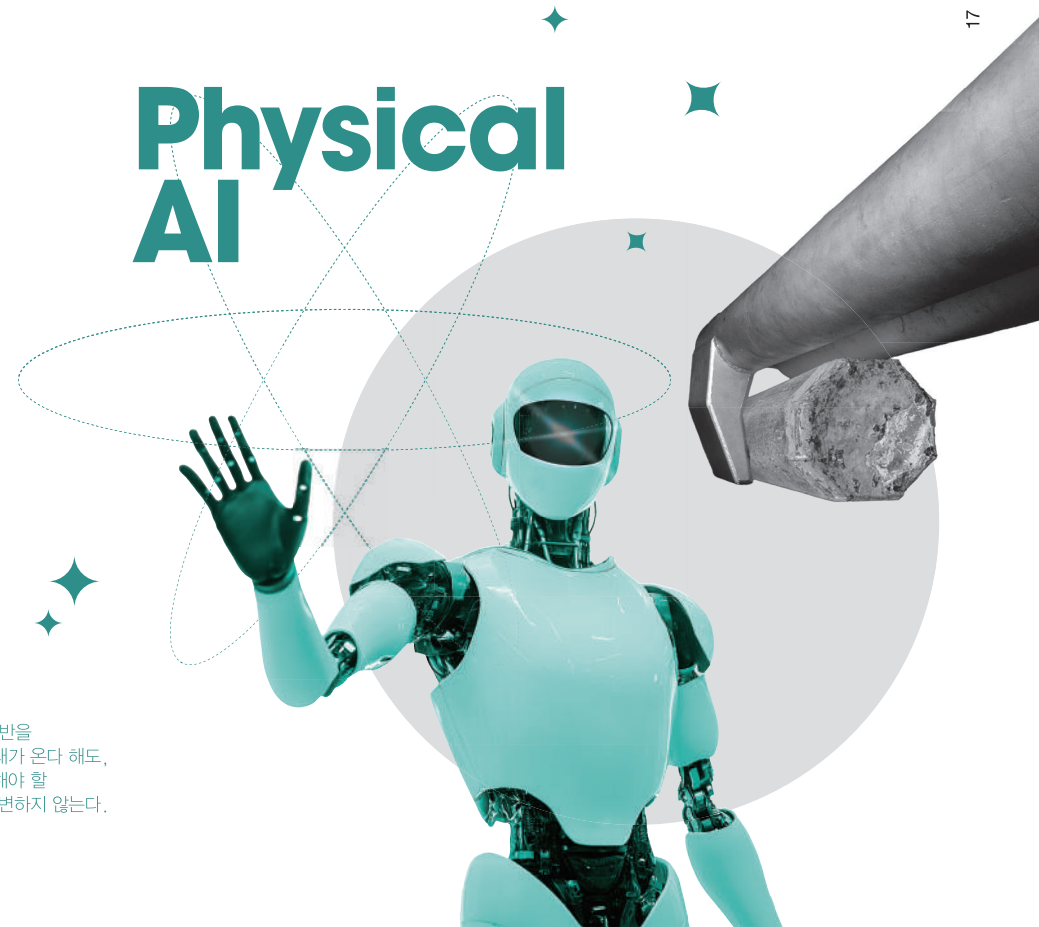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쇳물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완벽한 강도를 찾아내는 연금술사의 경이로운 과정은 오롯이 뜨거운 용광로 앞을 지켜온 장인들의 직감과 땀방울, 그리고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에 의존해 왔다. 불꽃의 미세한 색깔만으로 온도를 가능하고, 기계가 내는 작은 마찰음만으로 상태를 파악하던 인간의 송고한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직 인간의 직감에 의존하던 제조의 영역에 AI와 빅데이터를 전면적으로 접목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명장들의 노하우를 정교하게 데이터화하고, 인간의 육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미세한 변수까지 AI가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스템이 산업 현장을 혁신하고 있다. 이는 결코 AI가 인간의 자리를 빼앗는 비극이 아니다. 오히려 AI라는 가장 정밀한 도구를 손에 쥔 장인들이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결점의 경지, 즉 극한의 완벽함을 구현해 내는 연금술의 위대한 진화다.

결국 기술이 아무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AI가 산업 전반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해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바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다.

1mm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밤낮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뜨거운 쇳물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제강 현장의 연금술사들이야말로 차가운 철에 따뜻한 생명력과 감동을 불어넣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술가들이다. 예술의 경지에 이른 완벽한 제품력과 디테일로 무장한 세아가족들이, 다가오는 피지컬 AI 시대에 글로벌 리더 기업들의 대체 불가능한 '베스트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진정한 연금술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AI 시대, 여전히 그 승부처는 '고객의 감동'이다. ♣

Physical AI



AI가 산업 전반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해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오규섭 팀장 · 권진우 팀장

현장은 반복되는 작업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판단과 선택이 겹겹이 쌓여 있다. 같은 설비, 같은 공정이라도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 차이를 끝까지 좇으며 디테일로 품질을 완성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세아제강 대경공장에서 현장 인원 관리와 생산라인 운영을 담당하는 오규섭 팀장과 권진우 팀장이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현장을 이끌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더 좋은 품질, 더 안전한 현장, 그리고 고객이 체감하는 '감동'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현장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

대경공장의 하루는 '확인'과 '계획'에서 시작된다. 목표한 생산량이 달성되고 있는지, 생산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단순히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현장의 하루가 결정된다.

오규섭 팀장은 출근과 동시에 생산 실적을 확인한다.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될 경우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근무조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생산량은 곧 회사의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쉽게 넘기지 않는다. 현장의 미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메모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다.

권진우 팀장은 보통 한 시간 일찍 출근해 전날의 생산 및 안전 관련 자료를 점검한 뒤, 당일 작업 내용과 우선순위를 정리한다. 업무 시작 전에는 안전조회(TBM)를 통해 작업 계획을 공유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후에는 계획에 따라 생산 공정을 운영한다. 이때 두 사람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은 '조율'이다. 권진우 팀장은 "공정 간 속도를 맞추는 일은 쉽지 않다"며 "조관과 후처리 공정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조율하는 것이 현장의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한다.

'점검'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오규섭 팀장은 "작업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상시 확인하고,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작업자들의 컨디션까지 고려해 팀 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품질도 생산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오규섭 팀장.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하는 권진우 팀장.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다. 공정은 설비로 돌아가지만, 그 설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 상태, 팀원 간의 소통, 현장의 분위기까지 모두가 생산성과 직결된다. 그래서 이들은 지시보다 먼저 움직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이끈다.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을 완성하는 창의성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고민과 판단, 개선의 흔적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장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창의성’이 있다.

오규섭 팀장은 현장의 본질을 ‘문제 해결’이라고 말한다. 설비는 완벽하지 않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언제든지 발생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접근, 즉 창의성이다.

권진우 팀장 역시 문제에 대한 제안과 개선 과정에서 창의성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작업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에게 품질은 단순히 기준을 맞추는 일이 아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개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며, 기준을 높여가는 반복의 결과다.

작은 차이를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 그리고 그 차이를 품질로 연결하는 태도. 그러한 창의성이 고객 감동의 출발점이다.

작은 차이를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 그리고 그 차이를 품질로 연결하는 태도. 그러한 창의성이 고객 감동의 출발점이다.



함께한 성장의 시간이 쌓인 현장

대경공장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왔다. 오규섭 팀장은 공장 초기 구축 당시를 떠올린다. 설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준비를 시작해야 했고, 안전 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는 직접 안전 설비를 만들고 신입사원 교육과 공정 안정화를 동시에 이끌었다. 용접 불량과 공정 문제 등 수많은 시행착오가 이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 방법이 하나씩 쌓였다. 그때 함께했던 신입사원들은 지금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했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권진우 팀장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품질 문제로 해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대응했던 경험이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현장 대응 역량을 키웠고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됐다.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단순한 과거의 경험으로 남지 않았다. 하나의 기준이 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됐다. 현장에는 그 성장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동료 간의 소통과 배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체득했다.

품질과 신뢰로 빛어내는 감동

“고객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정교한 품질이 요구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오규섭 팀장의 말에는 현장의 고뇌와 투지가 담겨 있다. 권진우 팀장 역시 “과거 시행착오를 거치며 품질 수준을 끌어올렸고, 지금은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품질을 확보했다.”며 후배들과 협력해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고 말한다.

완성된 제품 앞에서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남다르다. 그것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와 싸우며 고민하고 땀 흘려 만들어낸 작품에 가깝다.

현장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곳이 아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나은 방식으로, 더 안전하게,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곳이다. 두 사람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는 것,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다. 디테일로 완성된 품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뢰. 그것이 바로 대경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감동’이다. ☺



나눔세아가 만든 태원이의 작은 기적

세아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2015년부터 '나눔 세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단순한 도움을 넘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세아그룹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이 캠페인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선천적 질환과 장애로 또래보다 발달이 더딘 태원이의 치료를 돕기 위해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세아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태원이의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



태원에게 일어나고 있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

태원이(만 4세)는 선천적 희귀질환인 골덴하르증후군과 뇌병변 장애로 또래보다 발달 속도가 느리다. 한쪽 귀에는 고막이 없어 청력이 약하고, 안면 기형과 사시로 인해 음식 섭취와 보행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걸음이 불안정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일이 잦고, 언어 표현이 원활하지 않아 때로는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태원이가 세상과 더 넓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다. 언어치료, 인지재활치료, 신경발달 중재치료 등 꾸준한 치료로 발달의 단계를 한 단계 채워가야 하는 상황이기도, 무엇보다 태원의 내일을 응원해 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세아는 태원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나눔세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임직원 117명이 참여해 총 11,440,000원의 후원금이 모였으며, 이 후원금은 태원의 치료를 이어가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

세아 임직원들이 태원을 위해 모은 후원금으로 태원은 병원과 치료실을 오가며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또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일상을 보내는 동안, 태원은 치료실에서 균형 잡기와 움직임 훈련을 반복하며 하루를 채운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기능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태원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루하루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하다. 약 2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하던 태원은 이제 5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엄마 주세요"와 같은 짧은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물리치료와 균형 훈련을 통해 몸을 지탱하는 힘이 길러지면서

걸음도 한층 안정됐고, 움직임의 범위 또한 점차 넓어지고 있다.

연하치료를 통해 이전에는 어려웠던 단단한 음식도 조금씩 씹고 삼킬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에서는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웃는 시간도 늘어났다.

세아가족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태원은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태원의 삶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정한 가치

한편, 세아는 '매칭 기프트 제도'를 통해 세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에 동일한 금액을 더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매칭 후원금은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치료가 필요함에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발달 지연 등으로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들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아의 나눔은 특정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지원은 아이들이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고,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나눔세아' 캠페인은 임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세아가 추구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나눔을 통해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세아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아가족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태원은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쌓아가고 있다.



태원이 가족에게 온 편지

안녕하세요. 태원이 보호자입니다.

태원은 골덴하르증후군과 뇌병변 장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저희 가정에서 개인 보험도 없는 태원에게 비급여 재활치료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재활병원 사회사업소 치료비 연결 덕분에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태원은 많이 호전되어 '엄마', '아빠', '맘마' 등 2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원의 치료비는 지원금으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비급여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세아와 연결되어 세아 임직원 모금으로 진료비를 지원해주신다고 하여 저의 걱정은 한시름 놓였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태원은 꾸준한 치료 덕분에 50개 이상의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태원의 소통도 더 원활해져 태원이 말을 하지 못해 보이던 폭력적인 행동도 많이 줄어들어 너무 기뻐했습니다. 글로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세아 임직원분들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태원이 치료를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잘 지켜 주는 엄마가 되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세아 임직원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태원이 보호자 올림

권력의 끝에서 울린 목소리, 인간을 향하다

2026년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ROBERTO
DEVEREUX

지난 3월 6일, 느즈막이 겨울의 끝을 전하며 내린 싸락눈 속에서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은 걱정 어린 선율로 달아올랐다. 이날 무대에 오른 작품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로베르토 데브뢰>로, 벨칸토 양식의 정점으로 불린다.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권력 구조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감정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올해도 대중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보다 깊은 예술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닌 거대한 구조로서의 비극

2015년부터 매년 엄선된 작품을 무대에 올려온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가 이번엔 선보인 작품은 <로베르토 데브리>다. <로베르토 데브리>는 흔히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로 요약되지만, 이 작품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층위에 놓여 있다. 엘리자베타 1세와 로베르토, 노팅엄 공작과 사라로

이어지는 관계는 단순한 삼각 구도를 넘어선다. 네 인물이 서로를 향해 교차하는 이 사각의 구조 속에서 감정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되고, 의심은 감정이 아닌 권력의 작동 방식으로 변환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곧 누군가를 의심하는 일이 되며, 그 의심은 결국 처벌의 근거가 된다. 이처럼 작품은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감정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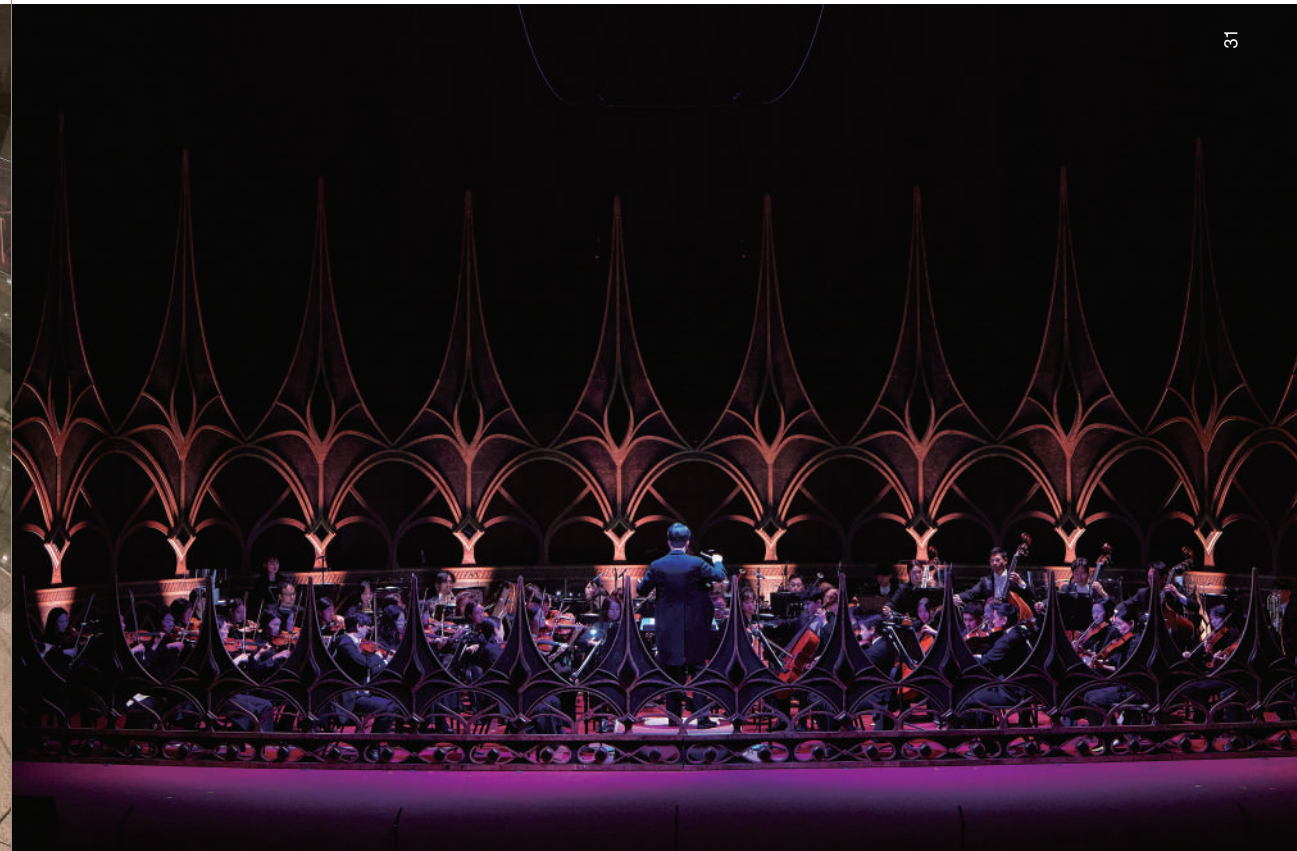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음악은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으로 깊숙이 침잠한다. 선율은 점점 절제되고 긴장감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응축된다. 그리고 마침내 여왕이 왕관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은 역사적 장면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감당해 온 무게가 조용히 무너지는 장면으로 읽힌다. 객석은 잠시 숨을 죽인 채 그 좁게 쪼개진 균열을 함께 통과한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오랜 시간 후원해 온 성악가들이 한 작품 안에서 만나 각자의 시간과 경험이 빛은 목소리를 포개며 깊이 있는 울림을 만들어냈다.

시간이 빛은 목소리가 주는 거대한 감동

이번 무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완벽한 하모니를 가능하게 한 '시간'에 있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오랜 시간 후원해 온 성악가들이 한 작품 안에서 만나 각자의 시간과 경험이 빛은 목소리를 포개며 깊이 있는 울림을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협연을 넘어 재단의 지속적인 예술 후원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결실로 이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지휘자 데이비드 이를 비롯해 소프라노 최지은, 테너 김범진, 바리톤 최인식 등은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의 후원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성장해 온 아티스트들로, 이번 공연에서 다시 한자리에 모여 더욱 단단한 호흡을 완성했다. 서로 다른 무대 경험을 쌓아온 이들의 축적된 시간은 음악 속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작품의 밀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공연이 막을 내린 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테너 김범진의 로베르토는 서정성과 불안을 교차시키며, 완성된 영웅의 면모보다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흔들리는 한 인간의 곁을 드러냈다. 소프라노 최지은의 엘리자베타는 권력자의 위엄과 인간적 고독 사이를 오가며 인물의 이중적인 구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 섬세한 감정 표현을 통해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균열되는지를 소리로 구현했다. 바리톤 최인식의 노팅엄 공작은 감정을 직접 표출하기보다 끝까지 억누르고 축적한 긴장 속에서 감정의 파동을 깊이 있게 전달하며 극의 중심을 잡았다. 시라는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서 침묵으로 긴장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했다. 이날 무대에서 울린 성악가의 소리는 단순히 음정을 높이는 기교가 아니라,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이 끝내 밀려 올라오는 순간의 전율처럼 다가왔다. 특히 그 소리는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폭발 직전의 상태를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술적 실험처럼 느껴졌다.



인간을 마주 보는 예술의 세계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녔던故 이운형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13년 설립됐다. 이후 젊은 성악가의 발굴과 성장, 그리고 주요 무대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이어오며, 단순한 후원을 넘어 예술가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그렇게 축적된 시간을 한 작품 안에서 다시 교차하는 자리였다. 저마다의 경로를 지나온 성악가들이 무대 위에서 만나는 순간, 관객은 하모니의 극치를 경험하게 된다. 매년 작품 선정에서 드러나는 방향성 역시 분명하다. 익숙함에 기대기보다 작품성과 예술성을 기준으로 레퍼토리를 선택하며 음악회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작품의 구조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오케스트라는 과도하게 전면에 나서기보다 성악의 흐름을 정교하게 받쳐주며 음악적 밀도를 유지

했다. 지휘를 맡은 데이비드 이는 극적 과잉을 피하면서도 선율과 긴장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이끌어냈다. 덕분에 음악은 감정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인물들이 향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짚었다. 연출 역시 과장된 장치나 설명적 연출 대신 인물 간의 거리와 시선, 그리고 정지된 순간들을 통해 긴장을 형성했다. <로베르토 데브뢰>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다.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조차도 사랑과 의심, 그리고 선택과 후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객석에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관객들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지 음악의 여운 때문만이 아니라, 작품이 던진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공연이 막을 내린 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

변화의 파고를 넘어 이어가는 지속가능한 성장

SeAH Global Inc 창립 10주년

미주 특수강 시장을 향한 도전으로 출발한 SeAH Global Inc(이하 SGI)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보호무역과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숱한 변수 속에서도 SGI는 시장을 넓히고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이를 기념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6 Business Strategy Workshop'은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략과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변화 속에서 다져온 기반

SGI는 2016년 'Speedy Growth and Independence'라는 슬로건 아래 미주 특수강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이후 SGI는 정직과 열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최적의 해답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며, SBQ 및 STS를 중심으로 탄소·합금강, 공구강, 단조품, 스테인리스강관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2018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이 강화됐고,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은 주요 고객사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며 회사의 존립을 위협했다. 그러나 SGI는 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체 수요를 확보하고 신규 고객을 발굴하며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했다.

특히 FE Block 제품 개발과 Oil&Gas Lifting 산업용 탄합선재 제품 개발, 그리고 중장비용 Link 양산 공급 및 에너지용 Downstream 제품 개발은 SGI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됐다.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을 개척한 경험은 SGI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10주년, 전략을 공유하다

이러한 10년의 여정을 기념해 열린 '2026 Business Strategy Workshop'은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 SGI의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는 전략적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의숙 회장이 직접 참석해 SGI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임직원들과 미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시장 전망과 함께 2026년 사업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SGI는 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유통 경쟁력 강화, 고객 기반 확장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멕시코, 캐나다, 중남미,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성장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둘째, FE Block, Tool Steel, Stainless Steel Long Products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 적용 분야 개발 강화를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셋째, 재고 판매 전략을 확대하고 현지 유통 역량을 강화해 시장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이 논의 됐다. 마지막으로 신규 고객의



SGI 창립 10주년 행사 및 워크숍



디트로이트 사무소

지속적인 발굴과 기존 주요 고객과의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영업 현장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Best Practice Awards와 장기 근속자 포상도 진행되며 지난 10년간의 헌신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워크숍 현장에서 공유된 메시지는 SGI의 지난 10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박의숙 회장은 SGI를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온 '영속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지성 전무는 "반복되는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 자체가 SGI의 성장 잠재력"이라고 평가하며 조직 간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분산된 조직 구조 속에서도 '솔직한 소통'이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임을 재확인했다.

강동필 법인은 "할 수 있다"는 구성원들의 믿음과 열정, 그리고 경영진의 신뢰가 SGI 성장의 기반이었다."고 강조하며, "세아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다음 10년을 향한 항로

SGI는 이제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시장 대응 경험과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다져온 경쟁력은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되고 있다.

보호무역과 공급망 변화 등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환경 속에서도, SGI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유연한 대응력, 그리고 조직 간 긴밀한 협업은 앞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량으로 작용할 것이다.

SGI의 10년은 변화의 파고 속에서 성장의 항로를 찾아온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져진 경쟁력과 조직의 힘은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SGI는 'Speedy Growth and Independence'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며 세아의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



휴스턴 사무소



앨버틴 사무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인시키다

세아홀딩스, 국내 최초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세아홀딩스가 글로벌 윤리경영 평가에서 또 한 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기업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세아홀딩스가 글로벌 윤리경영 평가기관인 에티스피어(Ethisphere)가 주관하는 '2026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orld's Most Ethical Companies®)'에 국내 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에는 전 세계 17개국, 40개 산업에서 총 138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세아홀딩스는 2024년 국내 기업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선정된 이후, 매년 강화되는 기준을 충족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세아홀딩스는 체계적인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을 바탕으로 리스크 평가와 내부 감사 등 컴플라이언스 관리 전반의 성숙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온 점 역시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성과로 인정받았다. 세아홀딩스 이태성 사장은 "세아홀딩스는 '정직'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고 윤리 원칙 준수를 일관되게 실천해왔다"며 "국내 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된 것은 윤리경영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전사 차원의 제도와 실천을 통해 내재화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리 원칙 준수를 기반으로 한 기업문화를 더욱 고도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에티스피어 최고전략책임자 겸 이사회 의장인 에리카 살몬 번(Erica Salmon Byrne)은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윤리 가치를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장기 전략에 내재화함으로써 기업 윤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력한 윤리·준법·지배구조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은 장기적인 성과 측면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세아홀딩스의 수상을 축하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수상을 넘어 세아홀딩스의 윤리경영 체계가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윤리와 준법을 기업 경영의 중심에 두고 이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해온 노력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아홀딩스는 앞으로도 윤리경영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으로 삼고, 글로벌 시장에서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평가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평가는 에티스피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윤리 지수(Ethics Quotient®)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거버넌스 구조 ▲윤리 문화 ▲환경 및 사회적 책임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등을 핵심 항목으로 평가한다. 제출된 데이터는 총 240개 이상의 기준에 따라 분석되며, 에티스피어 전문가 패널의 정성적·정량적 심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 세계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로부터 윤리·준법 운영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프레임워크로 활용되고 있다.

세아제강지주와 세아제강, 세아씨엠 등 세아그룹 3개사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 37301' 갱신 심사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항 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이로써 세아그룹은 '정직'이라는 핵심 가치 기반의 준법경영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무결점으로 입증한 준법경영, 신뢰를 넘어 경쟁력이 되다

세아제강지주 · 세아제강 · 세아씨엠,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갱신심사 통과



세아제강지주와 세아제강, 세아씨엠 등 세아그룹 3개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 37301' 갱신 심사를 부적합 사항 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경영 역량을 재입증했다.

3개사는 2023년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ISO 37301 인증을 획득하며 선도적인 규범준수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이번 갱신 심사에서 단 한 건의 부적합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기록했다.

3년 주기로 진행되는 갱신 심사는 최초 인증보다 시스템의 운영 수준과 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되는 평가다. 세아그룹은 이러한 높은 기준을 '무결점'으로 통과하며, 준법경영 체계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심사팀은 특히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위해 구축된 자체 통합전산시스템 'CP Lounge'의 안정적인 운영과 각 부서별 컴플라이언스 헬퍼(Compliance Helper)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내재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갱신 심사 통과를 기념해 세아제강지주 이주성 사장은 전 임직원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준법경영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주성 사장은 2023년 철강업계 최초 도입 당시부터 당부해 온 '실질적인 내재화'가 바쁜 현업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격려하고, 향후 준법경영이 나아가야 할 지표로 그룹의 핵심 가치인 '정직'을 강조했다.

그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직'을 세아의 흔들림 없는 기업 문화이자 자부심으로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확고히 내재화된 정직은 단순한 윤리적 기준을 넘어 시장과 고객의 굳건한 신뢰를 이끌어내는 우리의 강점이자 또 다른 핵심 가치인 '실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의 전략적 중요성도 언급했다. 공급망 투명성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고 내재화를 마친 기업만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컴플라이언스가 비즈니스의 제약이 아닌, 기업의 영속성을 지키고 협업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기반임을 재차 강조했다.

세아제강지주 준법경영팀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계 최초 인증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결과가 이번 갱신 심사 통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경영진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가 임직원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다품종 소량 시대를 돌파한 공정 혁신

세아베스틸 세아업적상 은상 수상팀

고객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 철강산업 역시 더 이상 '많이 만들어 잘 파는' 방식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세아베스틸의 한 팀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냈다. 턴디시 하나로 여러 강종을 생산하는 기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공정 설계이다. 이들은 대대적인 투자 없이 연간 67억 원의 원가 절감을 달성하며 '낭비 없는 생산'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실현해냈다. 이들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바뀐 시장, 달라진 해답

철강산업의 질서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한때는 제품을 생산하면 자연스럽게 판매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 생산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곧 다 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의 제강·연주 공정은 소품종 대량생산에 최적화된 구조다. 강종이 바뀔 때마다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는 생산 효율과 비용이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연주 공정에서 사용하는 '턴디시(Tundish)'는 비용 비중이 큰 설비다. 기존에는 강종이 바뀔 때마다 턴디시를 교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모됐다.

세아베스틸 세아업적상 은상 수상팀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기로 했다. “어차피 해야 하는 변화라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이 판단에서 출발한 과제는 기존의 ‘교체’ 개념을 넘어, 하나의 턴디시로 여러 강종을 연속 생산하는 기술로 이어졌다.

그 결과는 분명했다. 불륨 연주공정 약 52억 원, 빌렛 연주공정 약 8억 원, 재공 관리 약 7억 원 등 연간 약 67억 원 규모의 원가 절감 성과를 만들어냈다. 숫자로도 증명된 성과였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 방식 자체를 바꿨다는 점이다.

“어차피 해야 하는 변화라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이 판단에서 출발한 과제는 기존의 ‘교체’ 개념을 넘어, 하나의 턴디시로 여러 강종을 연속 생산하는 기술로 이어졌다.

‘섞이지 않게’에서 ‘섞임을 다루다’로

기존 공정의 핵심 원칙은 단순했다. “섞이지 않게 만든다.” 서로 다른 강종이 섞이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종이 바뀔 때마다 턴디시를 새것으로 교체해왔다.

하지만 이 팀은 질문을 바꿨다. “섞임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하고 관리할 수는 없을까.”

잔강 최소화 및 턴디시 재사용 기술은 이 질문에서 시작됐다. 하나의 턴디시를 최대한 활용해 연속 생산을 이어가되, 강종이 바뀌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혼탕부’를 정밀하게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팀은 공정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했다. 턴디시 내부 형상을 바꿔 남는 용강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냉각 구간을 세분화해 혼탕부만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샘플 데이터를 축적해 혼탕이 발생하는 구간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이정훈 대리는 “6년 동안 데이터를 쌓으며 예측식을 만들

었다.”고 말한다. 수천 개의 샘플을 직접 채취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언제, 얼마나 섞이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발생하던 고철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공정은 더 이상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데이터와 예측이 결합되며 ‘섞임을 관리하는 기술’로 진화했다.

불가능을 넘은 빌렛의 도전

이번 성과에서 특히 의미 있는 지점은 빌렛 공정이다. 빌렛은 불륨보다 단면이 작고 주입 속도가 빠르며 생산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그만큼 품질 반응도 민감해 업계에서도 잔강 최소화 적용을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영역이다.

김준호 차장은 “처음에는 시도 자체가 어려운 영역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시장 환경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팀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빌렛에 맞는 기준과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었다.



“뜨거운 공정일수록,
안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번 기술
혁신이 지향하는
진정한 가치를 대변한다.

램핑다운 기준을 재정립하고 자동 운전 모드를 개발했으며, 품질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이중 검증 시스템까지 구축했다. 수차례의 샘플링과 테스트를 거쳐 양산 적용에 성공했을 때 현장의 반응도 달라졌다. 기술의 완성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이는 단순한 개선을 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결과였다.

기술을 완성한 것은 사람

이번 과제의 출발점은 현장에서 나온 한 가지 제안에서 출발했다. “턴디시의 높이를 조절해 보면 어떨까.” 현장 세미나에서 나온 한 작업자의 아이디어였다. 이를 놓치지 않고 기술로 연결한 것은 팀의 몫이었다. 현장의 경험, 연구 데이터, 설비 개선이 맞물리며 하나의 해법으로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였다. 과거 잔강 최소화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불량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적인 기술’이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용 대리는 “전체 비용 관점에서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한다. 수차례의 설명과 검증, 그리고 반복된 테스트를 통해 현장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결국 기술을 완성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연주팀,



설비팀, 공정연구그룹, 생산관리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하나의 목표로 움직였고, 현장 작업자들의 경험과 협조가 더해지면서 비로소 결과로 이어졌다.

더 유연하게, 더 안전하게

이 기술이 만들어낸 변화는 비용 절감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이 확보되어야만 효율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작은 단위의 주문에도 대응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생산 스케줄의 유연성도 크게 높아졌다. 또 하나의 변화는 안전이다. 고온 환경에서 진행되는 턴디시 교체 작업이 줄어들면서 작업자의 위험 노출도 함께 낮아졌다. “뜨거운 공정일수록, 안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번 기술 혁신이 지향하는 진정한 가치를 대변한다.

그들이 만든 변화, 그리고 다음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다. 팀은 현재 잔강량을 더 정밀하게 제어하고, 고객사별 요구에 맞춘 품질 기준을 세분화하는 후속 과제를 진행 중이다. 빌렛 공정에서도 혼탕부를 더욱 줄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윤보희 차장은 이번 과정을 이렇게 돌아본다. “개개인의 물입이 협업으로 이어지고, 그 협업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잊지 못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장을 향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힘든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해 준 현장 구성원들 덕분에 이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실험은 여전히 흐르고 공정은 계속된다. 하지만 그 흐름을 만드는 방식은 달라졌다. 낭비를 줄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들의 선택은 세아의 생산을 더 유연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



방콕에서 고객·시장, 그리고 세아를 잇는 균형을 만드는 사람

논 롱솜분(Non Longsomboon)
SeAH Global Thailand 영업·마케팅 매니저



Non Longsomboon

태국 방콕. 동남아시아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기지로 성장해 온 이 도시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그 한가운데서 세아의 이름으로 고객과 시장을 잇는 사람이 있다. SeAH Global Thailand(SGT) 영업 및 마케팅 매니저, 논 롱솜분(Non Longsomboon)이다. 그의 일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객과의 접점에서 '지속 가능한 거래'를 만들어 가는 일. 논 롱솜분은 이를 통해 SGT에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SeAH Global Thailand(SGT) 영업·마케팅 매니저,
논 롱솜분(Non Longsomboon)





다양한 산업을 거쳐 세아로

논 롱솜분의 고향은 태국 프라추압 키리칸 (Prachuap Khiri Khan)이다. 태국에서 가장 폭이 좁은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공군기지 '왕'와 맞닿아 있으며, 깨끗하고 하얀 모래사장이 길게 펼쳐진 곳이다. 그는 이곳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해변이 있는 고향"이라고 소개한다. 산업과 비즈니스가 중심인 방콕과 달리, 고향은 보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지닌 곳이다. 이러한 대비는 그가 일과 삶의 균형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논 롱솜분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산업을 경험해왔다. 삼성전자 태국법인을 시작으로, 인력 공급 회사, 포스코 태국법인, 코웨이 태국법인을 거치며 제조업과 유통, 영업을 아우르는 경력을 쌓았다. 이후 SeAH Global Thailand(SGT)에 합류해 특수강 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가 세아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 철강 산업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여러 산업을 경험한 그에게 철강은 단순한 소재 산업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기반이었다. 그는 그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세아를 선택했다.

SBQ & STS 영업팀 Part 2의 리더인 그는 기존 고객을 중심으로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주문과 재고 관리, 납품,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그의 업무에 포함된다.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공급망을 조율하며 가격과 품질, 사후 관리에서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 이를 통해 고객과 회사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그는 영업 업무에 있어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좋은 영업이란 '장기적으로 품질을 보장하면서, 적절한 가격과 납기 준수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영업이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며, 그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신뢰다.

동남아시아 자동차 산업을 잇는 특수강 거점

태국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기지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부품사가 밀집한 시장이다. 전통적인 제조 기반 위에 글로벌 공급망이 결합되며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산업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방콕이 있다. 방콕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이자, 글로벌 기업과 로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다. 생산과 유통,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핵심 거점이기도 하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SGT는 2018년 설립된

논 롱솜분은 오늘도 방콕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고객과 시장, 그리고 세아를 잇는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수강 가공 및 유통 법인으로, 방콕에 본사를 두고 시장에 진입했다. SGT는 특수강 소재 공급에 그치지 않고, 가공과 물류를 결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세아는 이곳에서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안정적인 품질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주요 제품은 세아베스틸의 환봉으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동시에 SBQ 및 STS 영업 조직을 통해 비자동차 시장, 특히 석유·가스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공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논 롱솜분이 바라보는 SGT의 경쟁력은 명확하다. "품질, 가격, 납기가 핵심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말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고객은 단순히 좋은 제품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과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SGT의 과제이자 경쟁력이다.

그는 세아가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로 품질과 납기, 그리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꼽는다. 단순한 공급을 넘어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거래를 이어가는 과정이 지금의 경쟁력을 만들어왔다는 설명이다.



현지 문화와 세아의 조화

SGT의 조직문화에 대해 그는 "현지 문화와 세아의 기업문화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태국 특유의 유연하고 관계 중심적인 문화와 세아의 체계적인 운영 방식이 결합되며 조직은 안정적인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 동료들과의 협업에서도 그는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문화와 소통 방식이 다를 때는 업무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며 서로의 이해를 맞춘다. 차이를 줄이기보다 이해를 통해 조율하는 방식이다.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은 것은 '체육대회'다. 팀원들이 함께 협력하며 경기에 참여했던 경험은 업무 성과와는 또 다른 의미로 남아 있다. 함께 웃고 움직이며 만들어낸 시간은 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단순한 목표, 굳건한 믿음

논 롱솜분은 고객과 팀원이 결과에 만족할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만족을 지속시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동기다.

그가 SGT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의외로 단순하다. 현재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고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 급격한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지속성이라는 판단이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라고 그는 믿는다.

자신에게 세아가 어떤 의미인지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말한다. "세아는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강 기업입니다." 그의 말에는 기업에 대한 단순한 평가를 넘어, 그 안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신뢰가 담겨 있다.

논 롱솜분은 오늘도 방콕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고객과 시장, 그리고 세아를 잇는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하루하루는 동남아시아 시장 속 세아의 경쟁력을 조금씩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

봄을 깨우는 경쾌한 소리, 고소한 뽕튀기

맛의 추억은 처음 튀기고

“뽕!”하고 터지는 경쾌한 굉음, 이어서 피어오르는 김과 고소한 향. 뽕튀기는 먹기 전부터 이미 존재감을 드러내는 간식이다. 곡물이 한순간에 부풀어 오르는 장면은 보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손에 쥔 봉지에서는 바삭한 소리가 난다. 이름에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뽕튀기에는 시간과 기술, 그리고 모한 기다림이 담겨 있다. 익숙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뽕튀기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보고 듣고 기다리는 경험까지 포함한 간식이다.
 뽕튀기는 먹는 것에 더해,

압력과 기다림이 만든 한순간

뽕튀기는 먹는 간식이자, 하나의 장면이다. 커다란 원통형 기계 안에 곡물을 넣고, 불 위에서 천천히 압력을 올린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하지만, 내부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난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 손잡이를 여는 순간, 쌓여 있던 압력이 한꺼번에 풀리며 “뽕”하는 소리와 함께 곡물이 터져 나온다. 뽕튀기의 시작과 끝은 모두 그 한순간에 담겨 있다.

국어사전에서 뽕튀기를 찾아보면 ‘쌀이나 옥수수 따위를 썬 불에 볶아 부풀린 음식’이라고 설명돼 있다. 간단한 정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뽕튀기는 고온과 고압이라는 조건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완성된다. 온도가 낮아도, 압력이 부족해도 곡물은 제대로 부풀지 않는다. 그래서 뽕튀기 장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을 읽는 감각이 필요하다. 김의 상태, 기계의 소리, 불의 세기까지. 모두 몸으로 익힌 경험의 영역이다.

뽕튀기의 역사는 곡물과 함께 이어져 왔다. 쌀을 주식으로 삼아온 한국에서 뽕튀기는 남은 곡물을 활용한 간식이자, 아이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먹을거리였다. 설탕을 더해 달콤하게 먹기도 했고,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담백한 맛으로 즐기기도 했다. 특별한 재료 없이도 곡물 자체의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뽕튀기는 오랫동안 친근한 간식으로 자리해 왔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뽕튀기 기계의 존재다. 두꺼운 철판로 만든 원통과 뚜껑은 고압을 견뎌야 하고, 한순간에 열리고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뽕튀기는 재료보다 먼저 ‘기계’가 완성돼야 가능한 음식이다. 곡물이 부풀어 오르는 그 찰나의 변화는 결국 철판과 불이 만들어낸 결과다.

담백해서 오래 남는 맛

뽕튀기의 매력은 단순함에 있다. 특별한 속재료나 양념이 들어가지 않지만 천천히 퍼지는

곡물 특유의 고소함이 있다. 씹을수록 담백한 맛과 가벼운 포만감이 남는다. 그래서 뽕튀기는 많이 먹어도 부담이 적고, 오래 두고 먹기에도 좋다.

요즘 뽕튀기는 예전과 또 다른 모습으로 변주되고 있다. 전통적인 쌀 뽕튀기뿐 아니라 현미, 보리, 귀리, 옥수수, 오트밀 등 다양한 곡물을 활용한 뽕튀기가 등장했다. 여기에 꿀, 초콜릿, 캐러멜을 입히거나 꿀이나 조청을 더해 간식의 영역을 넓히기도 한다. 치즈·허브·매콤 양념을 더해 짭짤한 스낵처럼 즐기는 제품들도 생겨났다. 견과류나 아몬드, 씨앗류를 더해 영양과 식감을 강화한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

불과 압력, 그리고 곡물이 만나 부풀어 오르는 원리다.

뽕튀기의 ‘제맛’은 여전히 현장에서 완성된다. 기계 옆에서 기다리다 터지는 소리에 놀라고, 막 나온 뽕튀기를 봉지에 담아 건네받는 순간의 따뜻함. 뽕튀기는 먹는 것에 더해, 보고 듣고 기다리는 경험까지 포함한 간식이다. 그래서 뽕튀기는 늘 사람들을 기계 앞으로 불러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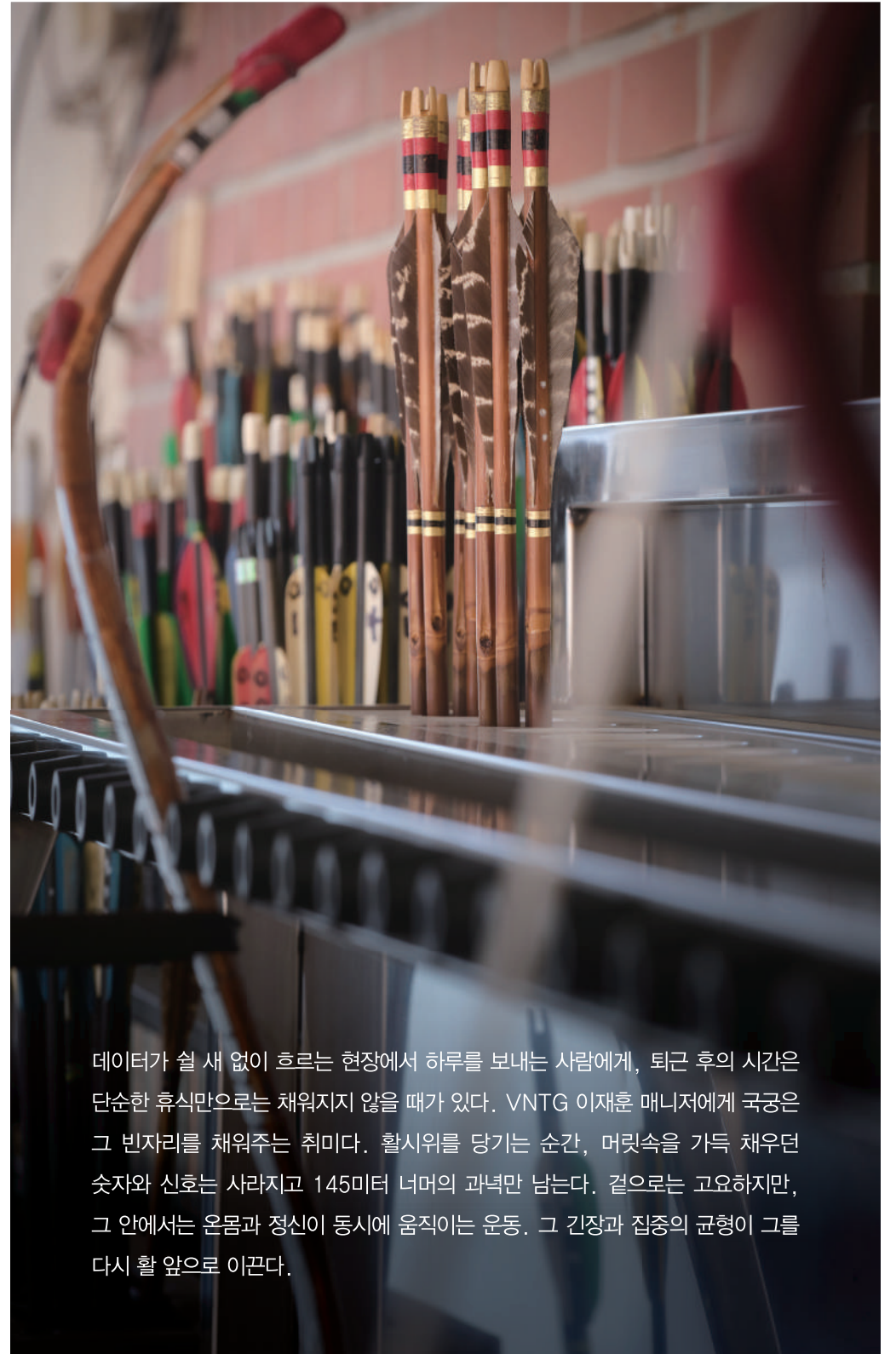
그리고 사람들은 정적 속에서 그 한순간을 기다린다. 조용히 쌓이던 압력이 터지는 찰나, 곡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축포와도 같은 변신과 손에 쥐었을 때 전해지는 따스한 바삭함. 그래서 뽕튀기는 지금도 기계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



고요한 활시위 너머, 흔들리지 않는 나를 보는 일

VNTG 이재훈 매니저

박재민 촬영



데이터가 설 새 없이 흐르는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에게, 퇴근 후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 VNTG 이재훈 매니저에게 국궁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취미다.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숫자와 신호는 사라지고 145미터 너머의 과녁만 남는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온몸과 정신이 동시에 움직이는 운동. 그 긴장과 집중의 균형이 그를 다시 활 앞으로 이끈다.



정적 속의 치열함, 그 역설의 운동

이재훈 매니저와 활의 인연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버스 창밖으로 본 양궁 선수의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았지만, 당시에는 예체능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으로 마음에만 간직해야 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스물여덟이 되던 해 실내 양궁장을 찾으며 다시 이어졌다. 그곳에서 선수 출신 코치를 만난 뒤 대학 양궁부에서 활동하는 등 약 8년간 양궁을 이어왔다.

이후 고양으로 이사하면서 양궁장을 찾기 어려워졌고, 대신 동네 국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언젠가는 국궁도 배워보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해왔습니다. 마침 집 근처에 좋은 곳이 있어 찾아갔고,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국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궁은 양궁과 비슷해 보이지만 방식은 크게 다르다. 우선 시위를 당기는 방법부터 다르다. 양궁은 세 손가락으로 시위를 당기지만 국궁은 엄지에 끼우는 깍지를 사용한다. 또한 무게중심을 잡는 방식도, 활을 쥐는 방법도 다르다. 무엇보다 국궁의 과녁은 145m 거리에 있다. 조준 장치도 없이 온몸의 감각으로 그 거리를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운동처럼 보이죠. 하지만 만화 <유미의 세포들>에서 주인공 몸속의 세포들이 치고 받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국궁을 하는 동안 제 안에서는 전신의 근육이 움직이고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다

국궁장에 도착하면 이재훈 매니저만의 루틴이 시작된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활에 줄을 끼운 뒤 균형과 화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다. 사대에 올라서면 먼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 뒤 첫 번째 순(라운드)은 몸을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쏜다. 두 번째 순부터는 머릿속으로 만들고 싶은 자세를 그리며 한 발 한 발 세팅해 나간다. 그렇게 1~2시간이 지나고, 3시간쯤 되면 몸이 후들거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마무리 신호다.

“국궁의 가장 큰 매력은 몰입감이에요. 활을 당기고 호흡을 고르고 과녁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에는 다른 생각이 사라집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도 국궁을 하고 나면 정리되는 느낌이지요.”

이재훈 매니저는 현재 VNTG 데이터포지팅에서 세아창원특수강과 세아베스틸(군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PLC, L2, MES)를 수집·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데이터를 다루는 일은 높은 정밀도와 집중력을 요구하며,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장을 놓기 어렵다.

이처럼 긴장감이 이어지는 업무 이후, 활 한 발이 만들어내는 ‘비워짐’은 어떤 휴식보다 분명한 해소의 시간을 제공한다.

물론 언제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과녁을 빗나갈 때의 아쉬움도 크지만, 다음 연습에서 그 원인을 보완해 다시 맞혔을 때의 성취감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탕!’ 소리와 함께 펠릭인 관중 깃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이재훈 매니저는 작년 11월 첫 승단 시험을 떠올렸다. 국궁 1단이 되기 위해서는 총 45발 중 24발을 맞혀야 하는데, 마지막 한 발을 앞두고 23발을 성공한 상황이었다.

연속 적중이 이어질수록 긴장감은 커지고, 오히려 몸이 굳기 쉬운 순간이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집중을 유지했고, 마지막 화살을 쏘아 올렸다. “마지막 남은 힘과 집중

으로 시위를 놓은 순간, 화살은 ‘탕!’ 소리를 내며 과녁에 꽂혔고 관중 깃발이 펠릭였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2단 승단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국궁장에서 그는 막내에 속한다. 국궁을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보니 일반적인 동호회와는 다른 차분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신입 회원은 전담 코치에게 기본기부터 배우요. 처음 한 두 달은 ‘주살’이라 불리는 연습용 화살로 기초를 다지는데, 실제 활을 쓰는 것과는 느낌이 달라 재미를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넘어서면 비로소 국궁의 진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욕심을 버릴수록 화살은 더 곧게 날아간다

1년 가까이 국궁을 이어오며 이재훈 매니저가 터득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하다. ‘힘으로 맞히려 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과녁을 맞혀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와 팔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럴수록 결과는 오히려 좋지 않았다. 지금은 호흡과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화살이 자연스럽게 날아갈 수 있도록 몸을 쓰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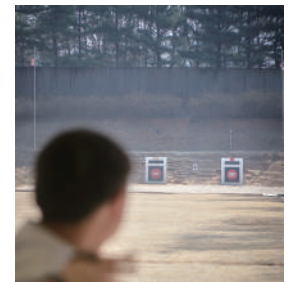
“국궁은 ‘한 번의 기막힌 한 발’보다 ‘흔들리지 않는 반복’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태도는 업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이 쌓여 세상이 바뀐다’는 영화 <역린>의 대사를 떠올린다. 그는 국궁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스스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고 믿는다.

“국궁은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줬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의 결과는 계단처럼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배웠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면 결국 더 큰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국궁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다양한 사람과 협업하며 빠르게 판단해야 하지만, 국궁장에서는 오롯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 공통된 원칙은 하나다.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사대 위에서 배운 그 감각이 모니터 앞에서도 살아 움직인다고, 이재훈 매니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표는 9단 명궁이다. 국궁은 서두른다고 빨리 늘지 않는다. 천천히, 오래 즐길수록 깊이가 쌓이는 운동이다. 오늘도 그는 욕심보다 꾸준함으로 과녁 너머의 자신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 ●



청계산이 드리운 서울 서초의 한적한 주택가에 바람결에 흔들리는 숲을 닮은 건축물이 있다. 수직으로 배열된 금속 파이프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그 그림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이곳 오디움(Audeum)은 '보이지 않는 소리'를 공간으로 번역한 건축이며, 소리를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이곳에서 금속은 자연의 표현이 되고 감각의 매개가 된다.

소리를 담은 금속의 숲
오디움(Audeum)

Audeum



숲처럼 서 있는 금속의 파사드

오디움은 일본의 건축가 쿠마 켄고 설계한 오디오 전문 박물관이다. 그는 '자연 요소를 현 재적인 재료 그리고 각 장소의 특징과 융합'하는 건축 세계로 주목받아 왔으며, 오디움 역시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구현됐다.

건물 외벽은 수직으로 배열된 알루미늄 파이프가 촘촘히 둘러싸고 있다. 멀리서 보면 단단한 금속의 집합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빛과 그림자를 머금은 숲처럼 느껴진다.

이곳에서 금속은 단순한 외장재가 아니라, 빛을 조율하는 필터이자 소리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전주곡이다. 차갑고 견고한 재료인 금속은 오디움에서 자연의 리듬을 닮은 존재로 재해석된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광이 파이프 사이를 통과하며 내부에 미묘한 명암을 드리운다. 건물은 고정된 구조를 넘어 빛에 반응해 유기적으로 변화한다.

세계가 주목한 '내부의 아름다움'

오디움은 2025년 12월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베르사유 건축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부문에서 내부 특별상(Special Prize for an Interior)을 수상했다. 이는 단순히 외형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혁신성, 독창성, 지역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 다층적 기준을 통해 수여되는 상이다.

빛을 조율하는 필터이자 소리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전주곡이다.
금속은 단순한 외장재가 아니라,

오디움은 실내 공간의 감각적 완성도와 기능적 설계가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부에 들어서면 목재의 따뜻한 질감과 향, 금속의 선형 구조가 조화를 이룬다. 수직 파이프 구조는 외부에서 내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공간의 리듬을 형성한다. 자연광은 천창과 틈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관람객은 빛의 이동을 따라 동선을 경험한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총체예술적(Gesamtkunstwerk) 공간이라는 설명이 과장이 아님을 체감하게 한다.

소리의 역사, 금속의 기억

오디움은 1877년 유성기 발명 이후 약 150년에 걸친 오디오 발전사를 정리하는 전문 박물관이다. 19세기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 재생기계, 웨스턴 일렉트릭 라우드스피커와 같은 세계적 음향시스템 등 폭넓은 소장품을 통해 기술과 예술의 접점을 보여준다.

상설전 《정음(正音): 소리의 여정》은 오디오 기술사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스피커들을 중심으로, 원음에 가까운 '정음'을 구현해 온 흐름을 소개한다.

전시는 도슨트 투어로 진행되며, 3층에서 시작해 지하 2층 라운지에서 마무리되는 동선은 시간을 거슬러 내려가는 방식이다. 3층에서 1950~60년대 가정용 스피커 컬렉션을 관람하고, 2층으로 내려오면 1920~30년대 빈티지 오디오 시스템을 만날 수 있다. 이어, 1층 스페셜 갤러리에서는 18~19세기에 발명된 뮤직박스를 볼 수 있다.

그중 웨스턴 일렉트릭의 혼 스피커 12A와 13A는 최초의 대형 극장용 사운드 시스템 중 하나로, 1920년대 영화관에서 사용된 극장용 스피커 시스템이다. 4미터가 넘는 금속 혼(Horn)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력한 사운드를 구현하며, 음악과 음성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927년 영화 <재즈 싱어>에 사용되며 무성 영화 시대의 종식을 알린 기념비적 스피커이기도 하다.





금속은 이곳에서 소리를 '확장'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혼의 곡선은 음파를 증폭하고 멀리 전달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그 앞에 서면, 기술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단단하다. 오디오의 전시물들은 금속이 어떻게 '감각의 인프라'로 작동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듣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오디움은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듣는 경험'을 확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디오 살롱'은 특정 음반이나 장르를 주제로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음원을 감상하는 청음 프로그램이다. 관람객들은 클래식부터 재즈, 팝,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고음질 사운드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다.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공간과 소리, 기술이 어우러진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워크'는 150여 명의 시각장애인과 안내자가 참여한 배리어프리



투어로, 상설전 《정음(正音): 소리의 여정》을 청각과 촉각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한 '렉처 오디오 콘서트'는 클래식 명반을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웨스턴 일렉트릭 혼 스피커 12A, 13A와 극장용 사운드 시스템 미러포닉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입체 음향을 경험하게 한다. 공간 자체가 하나의 악기처럼 작동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감각, 자연, 공동체를 연결하고자 하는 오디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새로운 소리의 세계, 새로운 사고의 결

음향시스템이라는 매체를 통해 예술과 금속, 기술은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다. 오디움에 머무는 동안 그 사실은 더욱 뚜렷해진다.

자연을 닮은 금속의 건물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소리의 세계. 오디움은 늘 같은 속도와 같은 폭으로 흐르는 사고의 결에 작은 균열을 만든다. 어쩌면 그 틈은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창이 될지도 모른다. ♡

세아베스틸

대형압연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지난 3월, 세아베스틸 대형압연공장은 군산소방서와 함께 민관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기실 화재'라는 극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화재 인지 시점부터 소방서 인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능력 점검에 중점을 뒀다.

주요 훈련 과정에는 신속한 상황 전파와 정확한 신고, 일사불란한 대피, 빈틈없는 초기 화재 진압 등 실제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 절차가 포함

됐다. 이를 통해 세아베스틸은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세아씨엠

플로깅 봉사활동 전개

3월 19일, 세아씨엠 봉사단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미성동 해팍마을 수변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문제에 대한 주민 제보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봉사단은 무단투기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며 환경 정비에 나섰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화물차 주차로 인해 쓰레기 투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계기관과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세아창원특수강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최



3월 17일, 세아창원특수강 사무동 강당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우수고객사, 공급사, 협력사, 모범사우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으며,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 영상 상영과 패트라 싱어즈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창립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나눔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직원 60명이 참여해 저소득 아동을 위한 간식꾸러미 600개를 제작하는

“기운내 봄” 봉사활동과 사내 헌혈이 실시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큰 도약을 향한 다음 여정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

사우동정

세아제강

결혼

서정우 포항공장 품질경영팀
노영래 순천공장 안전환경파트
정성윤 순천공장 PM팀
양현철 순천공장 품질경영팀
손효섭 포항공장 품질경영팀
서민규 포항공장 안전환경팀
이재경 본사 인사팀

출산

김민혁 포항공장 물류팀
강현승 군산공장 도금공장

조의

이건원 포항공장 중경생산팀 (빙모)
박병선 포항공장 설비보전팀 (빙부)
이원우 포항공장 중경생산팀 (배우자)
이상화 포항공장 중경공장 (빙부)

세아베스틸지주

입사

권정미 지원팀

세아베스틸

결혼

이창우 안전팀
최성민 제강설비팀
김준휘 압연설비팀
김재원 소형정정팀
이가람 영업기획팀
최세웅 안전팀
강건우 2제강팀

출산

간동철 생산관리팀
조 용 생산관리팀
조석민 영남실수요영업팀

조의

신광수 품질보증팀 (본인)
전인상 제강설비팀 (부)
오 석 환경팀 (부)

이용노 2제강팀 (모)
이태현 동반성장팀 (모)
홍영표 소형정정팀 (빙모)
안용호 제강설비팀 (빙모)
황성국 자유단조영업팀 (빙모)
김재규 대형압연팀 (빙모)

세아창원특수강

결혼

서영우 산세팀
박성진 산세팀
이길호 3제강팀
황태수 3제강팀
이철진 대형압연팀
윤주원 소형압연팀
김종언 강관단조설비팀
이상욱 공구강내수영업팀

출산

윤석민 2제강팀
이민재 산세팀
주재빈 품질보증팀
차윤기 업무지원팀
이주환 품질보증팀
윤상규 강관생산팀

조의

황삼용 강관생산팀 (모)
백성현 제강설비팀 (모)
배종암 생산관리팀 (빙모)
김인용 대형생산실 (빙모)
하병중 강관단조설비팀 (빙부)
심정훈 3제강팀 (부)

세아특수강

결혼

최진수 안전환경팀(충주)
도해인 봉강생산팀(충주2)
김대희 재경팀

출산

노재석 리스물관리팀
김민철 봉강영업팀

조의

이재우 운영지원팀(포항) (부)
최원대 디지털혁신팀 (빙부)
손용화 부산영업파트 (빙부)

세아M&S

입사

이기혁 설비관리팀
김승현 생산팀

조의

최낙동 생산팀 (모)

세아항공방산소재

입사

정경수 생산관리팀

출산

홍채민 가공반
이정훈 물류반

세아&S

출산

강민수 서울판재영업팀

VNTG

입사

이지훈 PC1팀
조형준 플랫폼개발팀
안병휘 CORE팀
윤종원 R&D실
김정환 그룹웨어서비스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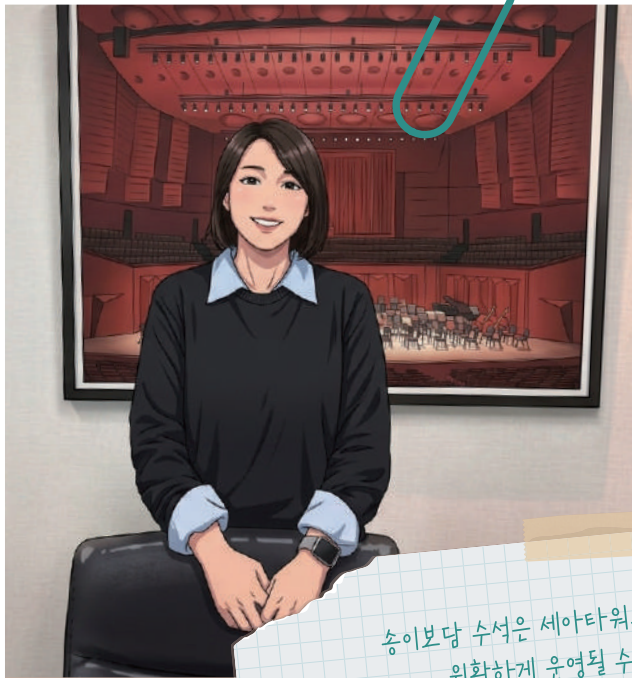
결혼

김지숙 MES3팀

당신을 칭찬합니다

2026 3+4월호 칭찬 주인공

세아홀딩스 지원팀
송이보담 수석님을 칭찬합니다!



송이보담 수석은 세아타워와 세아그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일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조작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죠.
항상 한결같은 책임감과 헌신으로 맡은 바를 수행하는 모습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 세아네트웍스 이경민 매니저

본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세아가족〉 사보 기자

- 세아제강지주 기업문화팀 홍지수
- 세아제강 인사팀 안미경
- 세아베스틸지주 인사팀 정빛나
- 세아베스틸 경영기획팀 이정화
- 세아창원특수강 경영기획팀 전유진
- 세아특수강 인사팀 변훈규
- 세아씨엠 업무지원팀 고은비
- 세아 M&S 인사팀 김윤정
- 세아항공방산소재 인사총무팀 한구일
- 세아 L&S 인사팀 정현영
- 세아네트웍스 기업문화팀 곽정현
- 브이엔지 People Hub팀 김효윤

SěAH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